

국장서 탈출한 개미들, 예금에 1005조 넣고 美 주식 샀다

금투협, 거래대금·개인 순매수 급감
7월 이후 두 달간 예금 56조 증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07조 기록

국내 증시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식 대신 정기예금과 미국 주식 등으로 눈을 돌리는 ‘국장 이탈’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초 139조원대까지 급증했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6일 98조917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100조원이 붕괴됐다. 이후 현재까지 90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하반기 들어 코스피는 22.37% 하락했다. 7월 한 달에만 22.19% 빠졌으며, 이후 지난달에도 7000선을 넘기지 못하면서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8월 25조7568억원을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직전 달이었던 7월 36조9000억원 대비 약 30% 하락했으며, 50조원대를 유지했던 5·6월과 비교해서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스피 조정이 길어지면서 개인투자자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조정이 길어지면서 예금과 미국 증시로 이탈하는 개미(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들은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코스피에서만 약 4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7월 들어 5조3710억원으로 순매수 규모를 줄였으며, 지난 달에도 3조235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고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 투자심리는 위축되는 반면, 예금과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강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잔액은 1005조23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에만 약 20조원 이상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겼다.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던 지난 7월부터 정기예금잔액은 55조8321억원 늘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로 복귀했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다시 집을 싸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미국 주식 66억475만달러(약 8조9800억원)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액을 웃도는 금액이다.

더불어국세청이 집계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가운데 해외주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으며, 이 중 해외주식 신고액은 6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조2000억원(27.4%)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자체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24년 6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4조5000억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07조1000억원까지 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신고액 중 해외주식이 차지한 비중은 57.2%였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유 규모 역시 커졌다. 개인이 신고한 해외주식 계좌 금액은 지난해 6조9000억원에서 올해 8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미국 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7조원으로

전체 개인 해외주식 신고액의 85.3%를 차지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TIGER 미국S&P500으로 1조346억원이 몰렸다. 이외에도 KODEX 미국나스닥100(6414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5739억원), KODEX 미국S&P500(4572억원) 등 미국 지수 추종 상품이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 역시 TIGER 미국S&P500(6650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KODEX 미국나스닥100(3964억원), KODEX 미국S&P500(3666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부담과 악화된 투자심리가 주식시장 반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높은 변동성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괴로움이 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엔트로픽 138조 IPO설에도 증권가 ‘신중’

스페이스X 공모주 무산 후폭풍
“상장 후 안전하게 매수” 분위기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엔트로픽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국내 증권·운용업계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6월 스페이스X IPO 당시 국내 인수단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해외 대어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위기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상장신청서 초안을 제출했다. 공식 일정과 공모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9~10월 초 상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상기업가치는 최대2조달러(약2770조

원), 조달액은 1000억달러(약138조원) 이상으로 스페이스X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체잠재시장(TAM)도 30조달러(약4경152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엔트로픽 IPO 참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 상장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IPO 당시 국내 인수단으로 참여해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주관사가 국내 판매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한 주도 받지 못했다.

미국 IPO는 국내처럼 청약증거금이나 경쟁률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다. 발행사와 현지 주관사단이 기관투

자자를 중심으로 최종 물량을 배정한다. 국내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하거나 청약을 받아도 실제 물량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자산운용업계도 공모주를 사전에 확보하기보다 상장 이후 직접 매수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엔트로픽이 상장되면 AI나 글로벌 기업, 기술주 관련 상품 등 편입할 수 있는 ETF는 많다”면서도 “스페이스X 때처럼 IPO에 참여해 배정받은 물량을 상장과 동시에 편입하는 시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이스X 때처럼 물량을 받지 못하면 상품 운용과 마케팅 측면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액티브 ETF는 상장 직후 엔트로픽을 매수할 수 있지만 패시브 ETF는 기초지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 이후 국내 증권사들이 엔트로픽 IPO 물량 확보에 신중해진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모습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CI 각 사

수 편입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하는 액티브 ETF들은 상장 당일 시장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내 기업은 비상장 단계에서 엔트로픽 지분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023년 1억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약 1339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보유 주식은 386만330주, 장부가액은 3조5050억원이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 5월 비공개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SK텔레콤은 통신사 특화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등 사업 협력을 전제로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확보했다.

일반투자자도 기존 주주 물량이나 사모펀드·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투자자 요건과 최소 투자금액, 기업의 양도 승인 등 제약이 많다.

공모주는 개인이 상장 전 엔트로픽에 접근할 사실상 마지막 통로지만 국내 증권사가 해외 주관사로부터 판매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스페이스X 때처럼 현지 대표주관사가 상장 직전 배정 물량을 전량 철회하면 국내 증권사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이런 선례가 생긴 만큼 엔트로픽 공모주 물량을 증권사 차원에서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리 상승에 ‘저부채 수익성 개선주’ 뜬다

전력기기·방산·IT 등 거론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보험주가 상승세를 탄 가운데 비금융주에서도 차입을 늘리지 않고 수익성을 높이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 상승 기대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된 만큼 실제 이익 개선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날까지 KRX 보험지수와 은행지수는 각각 22.55%, 7.5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전반의 흐름을 나타내는 KRX TMI 상승률은 4.99%에 그쳤다.

금융주 강세는 한국은행의 연속 금리인상과 맞물렸다. 한은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려 연 3.00%로 높였다. 금융위원들의 향후 6개월 금리

전망은 연 3.25%에 가장 많이 몰렸다.

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될 수 있지만 조달금리와 대손비용도 높아질 수 있어 건전성과 자본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의 3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4.9%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NIM 개선과 약 1500억원의 외화환산이익에 힘입어 보통주자본(CET1)비율도 13.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신한투자증권은 4분기 약 3000억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16만원으로 올렸다.

보험사는 금리 상승으로 신규 채권 수익률과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 채권의 평가손실 가능성은

부담이다.

비금융주에서는 차입을 늘리지 않고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가지본이익률(ROE)을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차입으로 ROE를 높인 기업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 재무레버리지를 낮추면서 ROA를 개선한 기업은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금리인상기에 재무레버리지를 낮추면서 ROA 개선으로 ROE를 높인 업종의 주가 성과가 양호했다고 분석했다. 전력기기와 방산, IT하드웨어, 화장품, 제약·바이오 등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의 ROA는 올해 10.1%에서 내년 15.7%, ROE는 14.9%에서 23.3%로 상승할 전망이다. LS일렉트릭도 ROA가 9.9%에서 12.3%, ROE는 23.7%에서 28.0%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허정윤 기자

밸류업 공시 756곳… 시총 83%가 참여

거래소,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잇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을 공시한 상장사가 756곳으로 늘어나면서 공시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 증시의 83%를 넘어섰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배당 확대가 이어지는 등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026년 8월)’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총 75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354곳, 코스닥 402곳이다.

공시 기업의 시가총액은 5074조원으로 전체 증시의 83.4%를 차지했으며, 코스피

에서는 그 비중이 87.7%에 달했다.

지난달 카카오·대원강업 등 9곳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새로 공시했으며, 이행 현황 공시는 11곳이 제출해 누적 124곳으로 늘었다.

주주환원 움직임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했고,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원 현금배당을 포함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이 잇따르면서 밸류업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에도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달 말 3240.84로 지난해 말보다 80.3% 올라 코스피 상승률(61.8%)을 18.5%포인트 웃돌았다.

/신하은 기자